한 해를 마무리하며 '빛이 머무는 밤'

신세계갤러리, 내년 1월14일까지 기획전…회화 등 30여점 전시

변지현 작 '슈퍼 문'

전시장에 신비로운 '슈퍼문'이 떴다. 알록달록한 작은 열기구도 매달렸다. 초승달이 내려앉은 달동네 밤풍경에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

광주 신세계 갤러리가 연말 기획전으로 '빛이 머무는 밤'(2020년 1월14일)을 준비했다. 누구나 편하게 전시장을 찾아 고요한 달빛 아래 한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 수 있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빛과 밤'의 이미지로 작업하는 다섯 명의 작가를 초청해 회화, 입체, 설치 작품 30여점을선보인다. 김춘재·변지현·이찬주·정영주·최수환 등 초대작가들은 각기 다른 표현방식과 작품의 소재로 어둠 속에서 발하는 빛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집에서 바라보았던 달을 잊을 수 없다는 변지현 작가는 그 순간을 스스로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그 순간의 느낌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전시장 벽면에 커다란 슈퍼문을 그리고 관람객을 초대한다. 정영주 작가는 한지를 캔버스에 붙이는 파피에 콜레기법으로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채색을 해 따스한 느낌의 '달동네'를 표현했다.종이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 집이 되고, 기억의 조각조각이 모여 추억이 담긴 마을이 만들어졌다.

김춘재 작가의 회화 작품은 환상적이다. 까만 어둠속에서 화려한 불빛이 만들어내는 판타지적인 풍경은 신비로움을 느끼게 한다. 검정색 아크릴판이나 래미네이트에 수많은 구멍을 뚫어, 그 구멍을 통해 나오는 빛으로 환영을 만들어내는 최수환은 사물의 표피만을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부신 이미지를 통해 작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

이찬주는 자신만의 집인 '열기구'를 밤하늘에 띄운다. 어둠 속에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는 듯 보이지만 별과 달을 따라 희망을 찾아 항해하고 있는 그의 열기구는 자신만의 빛과 색을 비추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유토피아 찾아 떠난 '몽상가들'

위재환 개인전, 오늘부터 호랑가시나무 아트 폴리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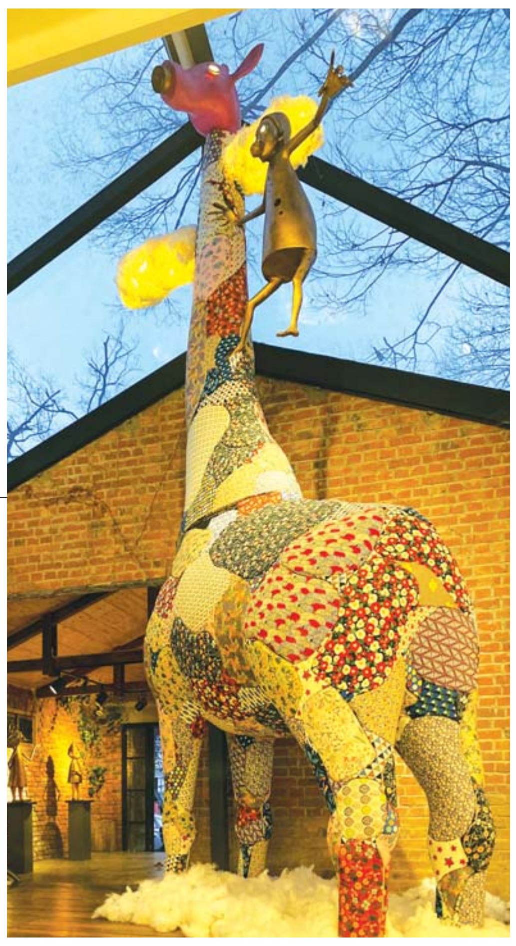
광주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 폴리곤은 매력적인 공간이다. 낡은 창고를 개조한 이곳은 붉은 벽돌과 오래된 나무, 밖으로 난 창, 유리로 덮인 천장 등이 어우러져 한 편의 풍경화를 연출한다.

조각가 위재환이 일곱번째 개인전(13일~2020년 2월20일)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이 공간과 잘 어우러지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시 주제는 '몽상가들-눈 먼 자들의 도시'다. 고교 시절 도록으로 접한 르네 마그리트와 지슬라프 백진스키 작품들에 마음을 빼앗긴 그는 자신의 작업에도 상징적 느낌을 가미한 초현실주의인 요소들을 등장시켜왔다.

전시장에서 눈에 띄는 건 6m 높이의 작품 '몽상가'다. 퀼트천으로 감싼 기린의 몸통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몽상가는 가족과 후세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유토피아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의 작품 소재로는 다양한 동물이 등장한다. 모든 생명체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공생과 공존'의 세상을 마음에 담은 결과다. 하늘에 매달린 고래는 오염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고래가 꾸는 꿈'을 담고 있다.

위 작가는 이상적인 삶을 위해 짊어져야 할 고난, 역경, 삶의 무게를 줄곧 청동이라는 재료를 통해 표현해왔다. 전시작 중 'Gate' 연작은 길게 늘어난 건물, 허공을 향해 뻗은 계단 등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상상하게 하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작품들이다. 또 독특한 실루엣의 인체 작품들을 통해 현대인의 초상을 그려냈고, 익살스런 꼬마요정의 모습도 눈길을 끈다.



'몽상가'

후대에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 것,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그는 자연스레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미세먼지와 황사로 고통받는 현실을 산소마스크라는 오브제로 드러내는 등 환경 문제를 고발하기도 한다.

조선대 미술대학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수료한 위 작가는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남도조각가협회, (사)현대미술 에뽀끄 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오프닝 행사 13일 오후 6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 14일 '공동체와 파이데이아' 학술대회

서양고전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내일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센터장 김병인 교수)는 14일 오후 1시 전남대 인문대 1호관 106호 이을호 기념 강의실에서 한국서양고전학회 2019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공동체와 파이데이아: 고전교육의 현황과 방법, 연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토론'. 가족과 공동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 현상을 진단하고 전망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의 공동체 모습을 '파이데이아'(교육)를 통해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서양고전학회(회장 최혜영 전남대 사학과 교수)가 주최하고 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와 인문학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구체적인 발표 주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한 신화 교육'(서울대 김헌), '인간과 AI의 공동체: 플라톤철학에서 배우는 것들'(연세대 조대호), '공감과 공동체: 고전문학과 고전어 교육을 중심으로'(정암학당 김진식)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또 연구세션에서 '철학자는 육체적 즐거움을 어떻게 멀리해야 하는가: 플라톤 '파이돈'의 경우(킹스칼리지 런던 구교선), '고대 아테네 민주정기 판아테나이아의 변화와 그 의미'(전남대 김효진) 등이 발표된다.

최혜영 학회장은 "요즘 화두가 되는 인문학적 소양을 쌓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혜가 담긴 고전을 읽는 것과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기본이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고전이라는 조개 속에서 인간, 삶의 의미, 참다움 등의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캐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피아니스트 김다솔 리사이틀 17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유·스퀘어문화관이 올해 마지막 공연으로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를 준비했다.

피아니스트 김다솔<사진>이 1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리사이틀을 연다.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24번 F#장조 Op.78', '피아노 소나타 제27번 e단조 Op.90', '피아노 소나타 제6번 F장조 Op.10', '피아노 소나타 제23번 f단조 열정' 등이다.

김 씨는 부산에서 태어나 만 16세 나이로 일본 나고야 국제음악콩쿠르 우승, 통영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준우승 및 오케스트라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다.

2008년 지휘자 미하엘 잔덜링과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을 레퍼토리로 독일 전역 투어 연주를 가지면서 유럽 음악계에서 주목을 받아 뉴욕필하모닉,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등과 무대에 올랐다. 지휘자 정명훈, 로렌스 포스터, 마린 알숍 등과 협연했다.

2011 금호아트홀 라이징 스타 시리즈 독주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국내 청중들을 만나기 시작했으며 2013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됐다.

최근 베토벤 소나타 전곡 시리즈를 선보이며 한국, 유럽, 북미 등 국제무대 공연을 앞두고 있는 그는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아리에 바르디 교수를 사사했고 현재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게랄드 파우트 교수를 사사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지원센터 13~14일, 입주자 오픈스튜디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 청년예술인지원센터 2019년도 입주자 오픈스튜디오 행사가 13~14일(오후 2시~6시) 이틀간 열린다. 또 입주작가 발표전은 13일~19일까지 청년예술인지원센터 1층 문화카페에서 개최한다.

청년예술인지원센터는 21세기를 선도할 광주 청년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문을 연 공간으로 입주자 창작활동지원, 청년 문화기획자 육성, 전시·음악·공연 등 상호교류 추진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작업 공간을 오픈할 올해 입주자는 미술 분야의 김 연, 김유민, 김은경, 노은영, 박다은, 손연우, 신다성, 하승완 작가를 비롯해 음악 분야 임주신, 영상단체 빅픽처, 연극단체 MOIZ, 그리고 문화 기획자 김동하다. 입주작가들은 오픈스튜디오와 발표전을 통해 올 한해 작품 활동의 결과물을 선보이게 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12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45기 협력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음악적 재능이 있고 용모 단정한 광주시내 거주 초등학교 4학년(현재 초등학교 3학년 가능)부터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응시가능하다.

접수마감은 27일 오후 5시까지이며 응시원서와 자유곡 악보 1부를 이메일(hiseyoung@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28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에서 열린다. 전형은 실기전형(자유곡 1곡)과 면접전형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월 3일 발표 예정이다. 합격자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며, 해외공연, 정기공연 수당지급, 단복제공, 캠프비 지원 등 특전이 주어진다. 응시원서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亞문화원, 전문인력아카데미 호평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이하 문화원)이 운영하는 전문인력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들이 호평을 얻고 있다.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는 최근 문화원이 전문인력 아카데미 과정으로 운영한 '문화예술현장 안전관리워크숍'을 문화시설 안전교육 우수 사례로 선정해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 워크숍에는 전국 10여개의 문화예술기관과 지역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해 관심을 받았다.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는 공연장 운영의 전문지식을 취합하고 교류·교육하며 공연장 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이어 문화원은 국내외 음향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월간 PA로부터 전문인력아카데미 '사운드 엔지니어' 프로그램이 음향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사운드 엔지니어' 프로그램은 문화전당 예술극장의 내부 음향장비를 활용하고, 무대기술팀 상주 감독들이 강사로 나서는 등 이론과 현장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